<단편영화 워크샵 'By the Sea' 배역 모집>

■ 작품 정보

작품명	By the Sea
연출자	마리엘
연락처	조연출 탄신이 010-4413-2027
장르	스릴러, 공포
촬영 회차	6월 2째주, 3회차 (12,13,14일)
배역	서연 (주연)
캐릭터 이미지	20대중반 여성, 긴 검은 머리 (선호, 필수 아님). 친절하고 남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배려해준다. 그러나 사랑하는 남자의 비밀 될 때 자기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옳은 일을 하고 싶어하지만 무력하고 느낀다.
필요 설정	수영 가능. 폭력적인 장면이 거부하지 않는 분.
시놉시스	남자 친구의 바다에 있는 작업실에 온 수연. 애인과 책을 쓰려고 하다가 유령을 만난다. 그 유령은 남자 친구가 죽인 사람인지 알게 된 서연이 탈출하고 싶지만 마음이 혼란스럽다.

*한국나이 아님.

■ 시나리오

S#8 바다의 다리, 환상, 밤

서연은 어느 순간 바다의 다리에 와 있다. 주변을 살펴보지만 아무 사람이 없다.

당황한 서연이 일기장을 펼치자, 어떤 남자가 갑자기 등장한다.

서연 누구세요?!

남자가 다가와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넘긴다. 피로 얼룩져 있다. 굳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서연.

그 페이지엔 "(흐릿한 이름)을 죽였다. 난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 적혀 있다.

서연 (유령을 바라보며)이거 꿈이지?

(.....)

충격을 받은 서연은 일기장을 떨어뜨린다.

상황을 믿을 수 없는 서연은 유령의 눈을 쳐다본다. 서서히 바닷소리가 커진다.

유령은 고개를 젓고 페이지를 또 넘긴다. 과거의 해변으로 점프한다.

S#14, 바다 밤

일기장을 들고 있는 서연, 바다 앞에 서서 일기장을 들고 외친다.

서연 아까 고마워.

그녀 앞에 유령이 나타난다. 일기장을 무시하며 서연의 눈을 마주친다.

서연 왜 날 그런 눈으로 봐?

그러나 유령이 대답이 없다. 서연을 계속 응시하다가 일기장을 쳐다본다.

서연이 일기장을 편다. 그 피로 얼룩져 있는 페이지에는 서준과 닮은 남자가 칼에 찔린 상태로 땅에 누워 있다는 그림이 나타나 있다.

서연 제발... 날 내버려 둬.

서연은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는다. 유령은 서연을 부드럽게 안아준다.

서연 난 그냥 떠나고 싶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유령이 그녀를 놓아준다.

서연 미안해. 널 도와줄 수 없어. 미안해.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고, 거센 파도가 함께 왔다갔다 한다.

서연 제발... 어떻게 해야 해?

갑자기 유령이 그녀를 보호하는 듯으로 더 세게 안아준다.

그녀 앞에 대답하는 목소리 들린다. 서준이다.

서준 내가 말해 줄게.

서연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준을 본다. 서준은 그녀를 팔로 잡고 일어서게 한다.

서연 놓으라고!!

서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서연, 유령은 절망적이고 불안한 듯으로 서연을

본다. 그녀를 도와주고 싶은데 바다에서 나갈 수 없다. 서연을 향해 손을 뻗는 유령. 서연은 그것을 보자 결정을 한다. 서준의 멱살을 잡고, 그와 함께 물속에 몸을 던진다.

물이 튄다.

해변에 일기장이 떨어뜨려 있다. 밀물이 들어오고, 몇 초 뒤에 일기장을 향해 뻗는 누군가의 손이 보인다.

■ 연출자의 말

바다에 들어가는 장면들이 많은 편인데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또한, 마지막 씬에 물속에 몸을 던질 때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잡아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